

불안서 해방하는 것이 참선

홀연히 잣나무 꼭대기에서 손을 놓고 반걸음 나아가라는 말을 듣고/ 확연히 의심 덩어리가 녹아 무너졌네/ 밝은 달은 홀로 드러나고 맑은 바람은 세로운데/ 능름히 비로자나 이마 위를 활보함이라(忽聞栢頭手放語 廓然銷却疑團處 明月獨露清風新 凜凜獨步鹿盧頂).

이렇게 해서 대원 스님은 고암 스님의 법제자가 되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담아 낸 질문 앞에서 자신의 일체 생명을 걸고 답하는 진경을 겨누는 그 자리에는 한 치의 빈틈도 있을 수 없다. 스승의 날카로운 취도점은 제자의 마지막 번뇌의 주라발을 베어 버린다. 삼세제불의 향기와 비교해도 일호(一毫)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평상심이 도”라고 했듯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마음이 본래 부처”란 말이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을 듣고 바로 알 수 있다면, 그 소리 하나 듣고 남전이나 원효, 육조 스님처럼 현실성 있게 살 수만 있다면 공부가 필요치 않다.

“부처님 말씀을 예로 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다면 그 사람을 좋은 마음으로 돕는 것이 선(禪)’이라 했어요. 일체중생 모두가 다 이런 마음으로부터 산다면 이렇게 살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말로는 알아도 실제로 그렇게 안 되니까 부득이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놓으라 해도 안되니 ‘이 짓고’ 하며 살펴보는 것이지. 천 가지 파도 속에서도 전혀 간섭받지 않고 순풍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하며, 싸움하는 속에 가서도 어깨춤을 출 수 있어야 깨달음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네 중생들은 ‘상대방이 폭언을 하거나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마음이 당장 따라 일어나 버리니 좌복 위에서 마음을 조련해야 하는 것이다.

남자에게는 선지식이 곁에 있어야 혼자만의 생각으로 공부를 지어가는 것은 위험하다. 서울을 가보지 못한 사람이 서울을 간다고 할 때 도중에 대구 같은 큰 도시가 나오면 휘황찬란하니까 그곳에 주저앉을 수 있다. 서울의 궁전까지 가서 제8아뢰야식을 박살낸 경험이 있는 선지식이라면 자신 있게 천하의 도인이라 할지라도 점검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대원 스님은 “부처님 경전이나 조사어록은 다 깨달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인이 생사를 걸고 정진을 하다가 기원이 되어서 스승을 만나 가지고 깨달은 분도 있지만, 많은 선사들이 부처님 경전이나 조사 스님 어록을 통해서 깨달았다”면서 선수행과 함께 경전이나 선어록을 공부해야 진척이 있음을 강조했다. 스님은 무구자(無垢子)도인의 <반야심경 주해>를 강설하고 책으로 펴내어서 선가에 일대 <반야심경> 열풍

을 일으켰다. 오동선원에서는 십년도 훨씬 넘게 토요일마다 대원 스님의 강설이 있고 강설이 끝나면 밤새워 웅망정진을 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대주선사어록>과 <중도가>강설이 있었고 지금은 <금강경 오가해> 법문을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 있다.

사람들은 때로는 ‘당장 눈앞에 감원조치를 당해 언제 해직될지 몰라 조마조마하면서 사는 데 무슨 선을 하라는 것인가? 참선한다고 해서 감원조치를 안 당할 수가 있는가?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나? 왜 현실성 없는 참선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 하고 의문을 품을 때가 있다. 스님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셨다.

“중생은 단지 살기 위해서 살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돈을 벌지 않으면 이 생명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하지만, 짐승들도 고기 한 점을 두고 서로 다투고 즐기고 이 육체를 살찌울 줄 압니다. 그런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서 되겠어요? 모든 경계에 부딪혔을 때 동글동글 원만하게 다 소화할 수 있고 결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 자신에게 있는 문제점을 녹여 없애야 합니다. 마음속에 쌓여 있는 자기 자신의 모든 불만을 받아지혜의 빛으로 녹여야 합니다.

본래 면목은 바로 깨달아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최상의 행복과 영원한 편안함을 누리고 사는 자리, 그 자리를 해탈이라 합니다.”

대원 스님은 “불안해하지 않고 멋지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은 내 마음의 고향인 마하반야에 이르는 것이며, 불안

과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참선’이라 했다.

줄 없는 거문고를 타고, 구멍 없는 피리를 불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안내해주는 대원 스님께 감사의 예를 올리고 나오니 봄 햇살이 가득하다.

따뜻한 봄바람이 우주 법계에 불어와서 그 기운이 흰 꽃과 푸른 잎으로 모양을 나타내 보이는 것. 그러나 흰 매화꽃을 볼 때 꽃만 보지 말고 우주 법계에 꼭 차 있는 봄을 보아야 하는 것이다.

글·사진=문운정 (수필가·본지 논설위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34> 현곡 김익식 박사

김익식(1900~1965) 박사는 송광사 출신으로 화엄과 삼론학의 대가이다.

1900년 전남 승주 낙안에서 태어나 송광사에서 대교과를 수료하고 중앙중학을 졸업한 뒤 일본 고마자와(駒澤)대학교 예과에 들어가 1928년에 졸업하였다. 1931년 경도 류고쿠대학(龍谷大學) 문학부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보성중학·해화전문 교수가 되었으며, 1946년 동국대 교수로 있으면서 서무처장, 도서관장 등을 역임하였다.

기산 스님이 말씀하였다. “해방 전 일본에 유학 간 사람이 많으나 현곡(김익식), 뇌허(김동화) 처럼 정상 코스를 밟아 공부한 사람은 많지 않다.”

필자가 박사를 뵈는 것은 송광사 법성사에서 부터이다. 1958년

오셔서 역지로 입으라 하였다. 사계(捨戒: 계를 버림)하고 입찰다 하여 미아리 영미암서 기산 스님을 증사(證師)로 모시고 사계하였다.

이것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사계 의식이었을 것이다. 이 사건이 인연이 되어 뒤에 입학한 비구니 송랑 스님은 승복을 벗지 않고도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교칙이 바뀌어졌기 때문이다.

김익식 박사는 일찍이 결혼하여 아들 둘을 두었으나 6·25 한국전쟁 때 피난 가다가 폭탄을 맞아 죽음으로서, 그때부터 밥을 먹지 않고 곡차로 사했다. 밥 술 가락만 들면 두 아들과 죽은 마누라가 어른거리기 때문이었다. 피난길에 연명하기 위해 나무 밑에 앉혀 놓고 마을에 들어가 밥

로 태어나 회생봉사함으로써 그 모습이 해와 달 속을 밝혀 영원히 없어지지 않게 된 것이다.”

이것이 장자 <불교설화 대사전>을 쓰는데 큰 자료가 되어 ‘비유·인연·본생담’을 1000여 개 찾고 ‘영험설화’를 2000천 개가 넘게 찾아 부류별로 나누고, 그것을 반복되지 않게 1200가지만 축소시켜 출판하게 된 것이다.

박사님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 일반 대중을 위한 이런 포교서가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강의시간에는 언제나 담배 두 갑을 가지고 오셔서 한 갑은 학생들에게 주고 한 갑은 친히 피우시면서, “자네들이 미안하면 내가 나가자” 하고 교실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술과 담배로 20년 동안 살다보니 얼굴과 입술이 푸르등등 하게 되었는데, 한 손으로 코끝을 훑

화엄·삼론학의 대가, 타 대학원생 위해 ‘중론특강’ 도 해

<화엄학개론>을 쓰기 위해 송광사에 오셨는데, 거처가 알맞지 않아 나의 방을 드리고 한 달 동안 부지런히 시봉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동국대에 와서 보니 그분이 바로 불교대학 서무처장이었다.

필자가 처음 동국대에 들어갈 때는 승복을 입고 입학하였는데, 이것이 교칙에 문제가 되었다. 당시에는 동국대 불교대학 학생 가운데는 한 사람도 승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각사 스님이 비구니인데도 승복을 벗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머리를 기르고 양복을 입고 다녔다.

“중이 중 옷을 입지 아니하면 누가 중 옷을 입습니까?” “학생은 어디까지나 학생이므로 중노릇을 하려면 산중에 들어가 해야 한다.” 그리하여 하루는 청계천에서 사지즈봉 물들인 것을 사가지고

을 얻어가지고 오니 세 모자가 폭탄에 맞아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밥이라도 끼니때마다 두 숟갈 아니면 세 숟갈 정도 드시는데, 그것도 잘 넘어가지 않아 막걸리예다 말아서 집수 시곤 하였다.

1963년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는 불대학장으로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화엄학 개론’과 ‘삼론학’을 가르치셨는데, 연대·고대·서울대 같은 곳도 대학원 학생들을 위해 ‘중론 특강’을 나가셨다. 신철동 옆 탑골승방 뒤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종종 심부름을 가면,

“공부 잘하느냐? 무엇을 전공하고 있느냐?” 묻고,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이니 삼매(三昧)를 통하여 공부의 과정을 증험해야 한다”하고, “불타와 불교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 “옛날 부처님은 토끼, 까마귀

치면서, “티끌 속에서 태산을 보아야 화엄학을 할 수 있고, 대양 속에서 물방울을 볼 수 있는 사람이야야 삼론을 할 수 있다.” 하셨다. 눈은 초롱초롱 언제나 빛났는데, 두 번 장(掌)수술을 했지만 몽혼주사를 놓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배를 췌다.

살을 가르는 고통에도 초연할 만큼 선정의 힘을 평소에도 닦아오셨던 결과일 것이다. 1965년 타계하실 때도 별 고통 없이 가셨기 때문에 기산 스님은 그의 영전에 이렇게 조사(弗辭)하셨다.

“구름처럼 왔다 구름처럼 가신님아 그 몸이 허공이 된다고 좋아할 것 무엇 있는가 낙산에서 처한 잔으로 부처님 노래 부르니 북한산 안개가 코끝에서 사라지고 있네.”

신제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귀의 삼보하움고,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 기업입니다. 사찰 및 불자님들께서 필요하신 양초 문의를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실내용 양초 - 밀납, 약썩, 식물성 양초
- ◇ 장엄용 양초 - 야광, 용초, 호랑이, 봉황 (7.5 × 35cm)
- ◇ 육각초 - 7.5 × 45cm (적색, 핑크, 노랑, 연두, 주황, 백색)

이제!

우창산업 (삼환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령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팽과리



-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습니다
-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갑니다

■ 서울매장 : 서울시 중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